

【P3-30】

오디추출물의 항당뇨 효능

김상운*, 홍정희, 김경란, 장미진, 최경호, 최상원, 이순재
대구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

뽕나무 열매인 오디는 자화수(雌花愁) 내에 여러개의 씨방이 발달한 과실의 집합체로서 예부터 고혈압, 당뇨병 및 노화를 예방하는 생약으로 사용되어져 왔다. 그러나 아직까지 오디의 혈당강하 및 이들 추출물의 생리활성에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한 실정이다. 따라서 뽕나무(*Morus alba*) 열매인 오디의 혈당강하 효과를 검증하기위해 오디 재배 지역별(영천, 상주)오디추출물 및 Diaion HP-20 칼럼 분획물(10%, 20%, 40% 및 80% MeOH)의 당뇨 효능을 *in vitro* 및 *exo vivo* 실험을 통하여 측정하였다. 오디 재배 지역별 오디 메탄올추출물의 α -glucosidase 저해효과를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효소저해활성이 증가하였으며 재배 지역별 차이는 없었다. 또한, 오디 메탄올 분획물(10%, 20%, 40% 및 80%)의 α -glucosidase 저해활성을 농도별로 측정한 결과 10% 메탄올 분획물은 농도 의존적(10-40 mg/ml)으로 저해율이 증가하였다. 한편, 오디추출물의 쥐 간 microsome의 glucose-6-phosphat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재배 지역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, 또한 오디 분획물 중 20% 메탄올추출물의 효소저해활성이 다소 높은 경향이었으나 분획물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. 결론적으로 오디 추출물의 혈당저하 효과는 재배 지역별로 차이는 없었으나, 10% 메탄올 분획물에서 우수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.